

# 이야기지도안

## 교육목표

**제목**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 안용복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목표** :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안용복의 용기에 대해 배운다.  
**주제** : 용기

**핵심어** 용기, 울릉도, 독도, 우산국, 이사부, 안용복, 박어둔, 독도 지킴이, 독도경비대, 어부

**한국문화** **목표** :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요소** : 독도, 독도 지킴이

**한국어** **목표** : 두 단어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를 배운다.  
**단어** : 와, 과  
**표현** : 울릉도와 독도, 안용복과 박어둔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OOO,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 안용복'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 한 번 불러 볼까요?

♪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팔칠케이)/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오늘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 낸 용기 있는 조선시대 어부 안용복의 이야기예요. 그럼,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 안용복'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뽕뽕! ♪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조선시대 동래에 어부 안용복이 살았어요. 안용복은 나쁜 일을 바로잡고, 옳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동래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울릉도에서 온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남자는 안용복에게 울릉도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전해 주었어요.

“내가 사는 울릉도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하면 일본 사람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안용복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렇소. 울릉도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하며 물고기를 몽땅 잡아갑니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잡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싸우기도 했지만 도망가거나 오히려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니 원. 속이 터집니다.”

그 말을 들은 안용복은 이 사실을 친구 박어둔에게 알렸어요. 박어둔도 불같이 화를 냈지요.

“어찌 그런 일이 우리 땅 조선에서 일어난단 말인가?”



## 이야기 들려주기

“그러게 말이네. 울릉도와 독도는 엄연히 우리나라 땅이 아닌가! 아무리 그들이 탐낸다 해도 우리 땅인 건 변함이 없는데 말이야!”

“속이 답답하네 그려. 그 많은 물고기들을 싹다 쓸어가면 우리 어부들은 뭘 먹고 살라고!”

“당장 같이 가세!”

안용복과 친구는 바로 배를 타고 울릉도와 독도로 향했어요. 가 보니, 울릉도에서 온 어부의 말이 맞았어요.

일본 배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물마다 걸려 있는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안용복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놈들! 싹 물러가지 못할까! 왜 우리 땅, 우리 바다까지 와서 도둑질을 해 가느냐! 당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지만 일본 어부들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네가 뭐라고 이래라저래라 하나?”

“우리가 뭘 잡든지 무슨 상관이야?”

안용복은 더 큰 소리로 불호령을 내렸지요.

“나는 이 나라 조선의 어부 안용복이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썩 물러가!”

하지만 일본 어부들의 수와 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어느새, 일본 어부들이 안용복과 친구를 에워싸고 공격했지요. 힘껏 싸웠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 어부들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일본 배에 갇힌 안용복과 친구는 손발이 꽁꽁 묶인 채, 일본으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우리 이대로 죽으면 어쩐단 말인가.”

친구 박어둔이 풀이 죽어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안용복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 있게 말했어요.

“그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잘못된 게 없네. 오히려 잘됐어. 난 꼭 일본 우두머리를 만나 담판을 지어야겠네. 다시는 울릉도와 독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말일세.”



## 이야기 들려주기

일본에 도착하자, 안용복은 일본의 태수 앞으로 끌려갔어요. 태수는 안용복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네가 감히 우리 어부들에게 큰소리를 쳤느냐? 겁도 없이!”

안용복은 태수를 노려보며 말했지요.

“그렇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너희 땅도 아닌 곳에 허락 없이 와서 물고기를 몽땅 잡아가는 게 어찌 당당한 일이란 말이나!”

“울릉도와 독도가 너희 땅이라는 증거라도 있느냐?”

안용복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지요.

“당연히 있다! 예부터 조선의 땅임이 지도에 기록되어 있다. 또 거리도 조선과 더 가깝지 않느냐! 조선 땅에서는 뱃길로 하루 만에 도착하지만, 너희 나라에서는 댕새나 걸리지 않느냐. 어찌 이러한 것도 모른단 말이나.”

태수도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리고는 또 물었어요.



## 이야기 들려주기

“넌 조선의 군인이냐? 어째 울릉도와 독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느냐? 난 널 여기서 바로 죽일 수도 있다.”

태수의 말에 안용복은 겁을 먹기는커녕 더 우렁차게 소리쳤어요.

“나는 조선의 어부다. 어부가 내 나라의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니냐? 날 죽여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은 변함이 없다!”

태수는 안용복의 용기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탄했어요.

‘어찌 한낱 어부가 저리 당당하고 용기 있단 말이나.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없다는 게 한탄스럽구나.’

태수는 안용복의 말을 듣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좋다, 네 말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임이 틀림없구나. 앞으로는 그 근처로 가는 어부가 없도록 하마.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안용복과 친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로 일본 배들은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걱정 없이 울릉도와 독도 바다에서 마음껏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조선의 어부 안용복 덕분이었습니다.



##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어부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어느 나라의 땅이라고 했나요?

네, 당시에는 조선, 지금은 대한민국의 땅이지요. ‘울릉도와 독도’에서 ‘와’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를 넣어야 할 때도 있어요.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과’를 붙여야 한답니다. ‘안용복과 박어둔’에서처럼 말이지요. 앞말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울릉도와 독도’처럼 ‘와’를 붙여요. 또 어떤 단어를 이어 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요.

안용복과 박어둔이 일본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용복은 울릉도 앞바다에서 일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가고,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으로 갔어요. 그는 당당하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하여 일본의 태수로부터 이를 인정받고 돌아왔어요. 사람들도 안용복을 울릉도와 독도 지킴이라고 하였지요. 현재는 ‘독도경비대’가 밤낮으로 독도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의 땅 ‘독도’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 안용복’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울릉도와 독도를 지킨 용감한 안용복 덕분에 조선의 어부들은 울릉도와 독도 앞바다에서 걱정 없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안용복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며 고마워한답니다.

안용복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독도 지킴이가 되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힘차게 불러 볼까요?

♪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팔칠케이)/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땡땡!♪



##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